

동시대의 견고한 것들

조은정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초빙교수)

국공립미술관의 미술계 내에서의 가장 큰 역할은 예술, 문화, 사회적 이견이 생겼을 때 이에 기여하는 것이다.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문화적 정체성을 명시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이 그것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은 88서울올림픽을 맞아 문화국의 자긍심을 보여주는 장소,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시라는 목적으로 출발한 조직체였다. 작품 수집 과정은 이러한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다. 2020년 현재 조각 작품 444점 중 27점은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제작된 바로 그 해에 수집되었는데 《서울미술대전》이 작품 수집의 통로였다. 그런데 소장 중인 155점의 설치 작품은 모두 2003년 이후 수집된 것이어서 조각이 동시에 소장된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것이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의 특징을 드러내는 단서이다. 작품의 질적 검증은 미술관의 고유 업무와 연관되어 있고, 전문가인 관장이 없던 시기에 검증은 《서울미술대전》이 담당하였고 그 결과 조각과 설치 작품 소장의 시간차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국공립미술관의 '기여'로 예시되는 권위 있는 작품의 수집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2010년 《서울미술대전》이 '현재의 한국 현대조각'을 보여준다는 목적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다양한 재료와 형식으로 전개된 현대조각을 미술관이 적극적으로 수용함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소장품의 장르별 균형을 맞추려고 작품을 사 모으면서 조각, 설치, 미디어 작품의 비율을 높였고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작품들을 부분적으로 보충"함으로써 2012년 소장품 수집 방향을 가시화했다.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생존 작가'의 작품이라는 수집 방침은 동시대, 국가를 넘어선 소장품 수집의 방향을 언명한 것이었다.

부피와 무게를 가진 조각 작품, 이질적인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재현에 그 어느 작품보다 꼼꼼한 매뉴얼이 따르는 설치 작품은 '어느 정도' 3차원 공간의 예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견고함과 부드러움, 무거움과 가벼움,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 시간의 수용과 반시간성 등 모든 것을 대치시키고 공존 가능케 하는 조각과 설치의 현대 동시대 미술의 특성을 작품 자체에 보유한다. 수장고에서 바깥나들이를 한 번도 하지 못

한 작품들 중에도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동시대 국제적인 미술의 네트워크의 한 점을 형성하는 것이 있다.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듯,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해서 금광석이 아닌 것 또한 아니다. 가치를 부여할 때 작품은 의미를 발생시킨다. 언급하고 기록한 순간 지나간 역사가 되는 현대미술의 특성상, 수장고에 간직되어 있으나 크게 드러내지 않은 작품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미래'인 것이다.

무게를 상실하고 재료를 확장한 조각이나 입체는 이제 더 이상 견고함이나 영구성이라는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다. 벽에 걸리고 바닥에 놓여지고 공간에 떠 있는 이들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조각과 설치 영역에 존재한다. 일상의 것들인 오브제를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작품과 현실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환상으로서 미술의 기능을 수행한 작품들은 공간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더욱 견고한 환상이 실체가 된다. 기기의 도움 없이 가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작품은 기계적 움직임과 결합하였을 때 실존으로 다가온다.

김구림의 <공간구조 69>(1969, 2013 재제작), 양정욱의 <날벌레가 알려준 균형전문가의 길>(2013), 작품과 수다 떠는 남자 형상의 조나단 보로프스키(Jonathan Borofsky)의 작품 등이 그러한 범주의 것이다. 조각에 적극 도입된 과학기술은 작품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최원준의 <만수대 마스터 클래스>(2013-18)는 전통적인 입체 조각과 사진, 비디오가 결합하여 하나의 작품이 된 것이다. 동영상으로 상영되는 내용은 프로젝트의 진행에 따라 업데이트됨으로써 최초 소장 당시에서부터 작품이 변화하였다. 프로젝트형 작품의 과정을 미술관이 유연하게 받아들인 결과였으며 동시대 미술 수용방식의 전형을 보여준 예였다.

서울시립미술관 조각, 설치 분야 소장품 중 <무제>는 28점이다. 형태나 의미가 열려 있는 추상을 표방한 작품이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말이다. 이마저도 박성태의 '말(Horses)' 형태를 소재로 한 것처럼 형상이 뚜렷한 작품들을 제외하면 추상은 수가 적다. 그것은 서울시립미술관의 작품 소장이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탓일 것이다. 동시대 작품은 김정숙, 전뢰진, 이승택, 한용진, 최만린, 최의순 등과 같은 중견작가들에서 시작하였다. 생명 가득한 이미지로 구상과 추상의 경계에 있는 이들의 작품은 작가의 감각으로 대상을 재연하는 데 목표가 있었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제작된 강관욱, 강대철, 박희선, 심정수, 홍순모의 인간 형상 작품은 가나아트컬렉션에 기반하고 있다. 사회적 현실의 고발을 담은 민중미술 영역의 것이다. 역사에 대한 자각은 역사에서 소외된 민중을 중심으로 이동시켰고 모더니즘의 형식미학에서 조금은 열려진 내용 미학을 열었다.

88서울올림픽 때 내한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던 마우로 스타치올리(Mauro Staccioli)의 <무제>(2000)는 30년이 지난 지금의 올림픽공원 조형물과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이후 설치된 국내 공공미술뿐만 아니라 이태리 볼로냐의 상징적인 조각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안토니 카로(Antony Caro)의 나무와 도자를 사용한<Edmonton Arch>(1997-99)는 에너지와 물질적 힘을 가시화한 철과 도자 작품 등을 제작하던 시기의 작품들 중 독보성을 지닌 것이다. 기억의 '각인'과 사회의 관계를 고찰하게 하는 설치 <레닌의 램프는 농부의 오두막에서 빛난다(Lenin's Lamp Glows in the Peasant's Hut)>(2011)의 작가 리나 셸란드(Lina Selander)는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스웨덴 파빌리온을 채웠었다.

시 진덴(Shi Jindian)의 와이어를 엮어 3D로 만든 <Motorcycle>(2005)는 뜨개질 기법과 디지털 모델링의 사이에서 보이는 것과 드러나는 것이라는 미학적 체계 이외에 인간의 수공과 기계적 작동, 공예와 조각의 구분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고단한 판단의 기준은 양주혜의 <공(空) . 0 . 하(不)>(2000), 이불의 <무제>(2006), 박미화의 <이름>(2015), 김신일의 <마음>(2015), 주세균의 <트레이싱 드로잉 시리즈>(2013-14)에도 적용된다. 선을 반복하여 그림으로써 2차원으로 '확장'되고 다시 실제 물건을 캐스팅한 사물을 부착한 이승리의 <Relationship-05>(2005)도 공예와 조각, 조각과 오브제의 경계를 무화시킨다. 이진용의 280개의 서랍 여섯 귀짝이 하나의 대형 가방을 이루는 <In my memory-내 서랍 속의 동화>(2003)는 거슬러 올라 만나는 미술관의 오래된 역사 '캐비닛'을 만나게 한다.

동시대 소장된 작품은 철저한 고독 속에서 자신의 시간을 간직하고 있으며 동시대성이라는 그물이 그들을 감싸고 있다. 서울은 이제 1988년의 올림픽 때 그토록 자랑하던 맑은 하늘의 자연친화적인 도시가 아니다. 역사적인 도시에 세워진 현대 도시로서 구도심과 신도심이 크게 구분되지 않고, 주거지와 상업시설 또한 크게 구분되지 않은 조화의 도시이다. 홍승혜의 <유기적 기하학>(2004)은 단순 모듈을 넘어서 때론 추상으로, 때론 도시의 건물 숲으로도 인지된다. 도시의 외형을 보여주는 작품이 아님에도 그것이 플라스틱, 인조 물질, 야광페인트, 에폭시, 오브제와 같은 것을 재료로 사용했을 때 도시적인 감각을 느끼게 한다. 대도시 서울의 정체성과 연관된 현대인의 욕망, 고독, 소외, 자본주의에 매몰된 일상을 주제로 한 작품은 현대인의 지금을 반영한다. 런던이나 뉴욕에서 보는 이민 노동자를 나타낸 김세진의 <모션핸드>(2016)와 유화수의 독일과 호주에서 단기체험으로 외국에 나간 청년프로그램을 다룬 <워킹 홀리데이-보이지 않는 일>시리즈(2017)는 자신의 영역을 벗어난 이들이 생존을 위해 수행하는 노동을 말한다.

이 묘한 공통성은 '우리'와 '그들'이 직조될 수밖에 없는 그물망 같은 현실을 감지하게 한다. 자각하고 질문하게 하는 예술의 목적을 수행한 성실한 작품들은 가치를 부여하였을 때 우리 시대를 증언할 것이다. "채트 채트 채트! 가치가 있어져라!" 모든 이들이 예술가인 세상에서 모든 이들이 비평가가 아닐 이유는 없지 않은가. 인간의 경험과 감정, 기술이 압축된 이렇게 견고한 물질들 앞에서는 더욱.

본 원고는 《컬렉션_오픈 해킹 채굴》(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021.01.26 ~ 2021.04.11.)의 도록 『컬렉션_오픈 해킹 채굴』(2021)에 수록되었습니다.

© 작가, 저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모두의 연구실 '코랄'에 수록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작가, 저자,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에 있으며, 저작자와 서울시립미술관의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